

칼럼

김윤호

주필, 행정학박사,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미국의 고질병 인종차별과 아시아계 증오범죄

지금 세계 최강의 국가,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증오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단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Stop Asian Hate'(아시아 증오를 멈추어라), 팻말을 들고 2021년 3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언, 폭행 등 혐오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Stop Asian Hate는 2021년 3월 1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총격사건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아시아 감정에 대한 반대 시위 문구다. 로버트 에런 퐁이라는 21세의 백인 남성이 애틀랜타 내 마사지 업소 등 3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이 사망했는데 6명이 아시아계 미국인(한국인 4명, 중국인 2명)이었다.

이 범죄에 분노하는 오프라인 집회가 미국 곳곳에서 전개되었는데, 최근에는 '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에 빗대어 'Asian Lives Matter(아시아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문구도 등장했다. 미국 내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이에 따른 증오범죄는 오랜 기간 이어진 뿌리 깊은 문제다. 특히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이후 그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더욱 심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의자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대의 악인 중국과 맞서 싸우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와 인권, 자유와 평등의 모범 선진국 미국의 인종차별, 특히

흑인차별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519년부터 1860년대 말까지 약 12,500,00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아프리카를 떠났고 약 10,700,000명이 아메리카에 도착했다. 아메리카 대륙 이외에도 아랍 국가와 유럽 등 다른 곳으로 팔려갔지만, 인간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은 흑인 노예들이 항해 도중 죽임을 당하거나 질병이나 영양 결핍 등으로 죽은 노예들이 아주 많다.

대영제국도 서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가거나 사다가 팔아서 큰 이득을 취했다. 청교도들이 성공회와의 갈등과 종교탄압을 피하여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신대륙에서도 흑인노예 매매와 흑인 노예제도를 유지했다. 1807년 노예 매매를 금지한 영국을 시작으로 서구 열강들은 노예 무역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켜 나아갔다. 미국 노예제 폐

지는 1863년 1월 1일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에이브러햄 링컨 공화당 초대 대통령이 발표했다. 1865년 미국 수정 헌법 제 13조가 비준되어 노예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공식적인 노예 해방은 150여 년 전에 이루어졌으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비무장 흑인에 대한 총격 사망 사건이 많지만,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George Perry Floyd)가 사망했다. 항의시위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멤피스, 백악관 앞 등 미국 전역에서 전개되었다.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은 약 5분간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압박했다. 데릭 쇼빈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누를 당시 플로이드는 수갑을 찬 채 땅 위에 엎드려 제압되

어 있었다. 플로이드는 경찰을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제압당할 때까지 물리적인 저항이 없었고, '숨을 쉴 수가 없다', '살려 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했고 행인들이 경관에게 플로이드가 숨을 쉬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의식을 잃은 후에도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질식사하는 비인간적인 살인을 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을 행사한 시위대를 건달이라고 지칭하며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많은 미국인들이 분노하고 애도했다. 미네소타 시장 자콥 프레이는 '미국에서 흑인이라는 것이 곧 사형선고여서는 안 된다'고 했고,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는 '그 역겨운 비디오에서 제가 본 인간애의 부재는 병적이다'고 말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편협한 믿음과 차별의 유산을 종식시킬 새로운 정상적 상태를 촉구한다'는 긴 글을 발표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의 가족의 슬픔, 분노, 반감, 좌절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비극과 부당함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일이며, 미국 생활에서 인종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

을 그의 죽음이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잔인한 질식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질식사시키고 있는 부당함과 공포의 장애를 알고 있다. 많은 이들은 우리나라의 정의의 선의를 갖고 의심하고 있다. 흑인들은 미국이란 국가의 즉각적이고 정당한 조치도 없이 벌어지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폭력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정의란 오직 평화로운 방법만으로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성명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권력과 도덕성의 주체인 국민들은 떨쳐 일어나 인종차별적 경찰과 법제도, 그리고 흑백 사이에 존재하는 비도덕적인 경제 차별의 종식을 외쳐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다(多)인종, 다민족 국가이며, 버락 오바마 등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한 위대한 국가요, 위대한 국민이다. 그런데 인종차별이라는 비인간적·비도덕적인 역사적인 유산, 역사적인 문화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해서 흑인차별과 아시아 등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고질적인 인종차별을 치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축사화재, 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지역의 들녘에도 봄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분주한 농민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이곳 저곳에서 신규 축산 농가가 들어서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축산업은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지만 화재 등 재난사고에 취약하여 매년 소방서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 및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축사는 축종별 축사의 운영방식이나 건축구조가 각기 상이하지만, 일반 건축물에 비해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사전예방과 화재 발생 시 대응 능력이 떨어

지고, 그나마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더라도 가축 분변의 가스나 먼지로 인한 고장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축산 농가는 건축 시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보온재를 사용하고, 건축비용 절감과 작업편의를 위해 축사 간격을 인접하여 건축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에 취약하여 화재 발생 시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3년간 전남에서는 158건의 축사 화재로 2명의 인명피해와 9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11일에도 전남 모

지역의 둔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 추산 9억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사항을 몇가지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축사화재는 대부분 전기로 인한 화재로 누전차단기와 노후전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특히 규격전선의 사용과 노후전선은 발견 즉시, 교체해야 하며 배전반의 먼지와 거미줄은 수시로 제거해야 한다.

둘째, 축사는 크고 작은 보수공사 등으로 용접·용단 작업이 많은

편이다. 작업 시 주위의 가연물을 사전 제거하고, 용접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근거리에서 소화기를 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축사 주변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볏짚 등 가연물이 쌓여있는 장소 인근 지역의 소각행위를 관계인이 나서서 방지해야 한다.

축산업은 많은 자본금이 투입된 농민들의 소득원이며, 재산이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축사화재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현재 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축사 화재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김성진/영안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Includes contact info for editorial and circulation departments.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